

사이버대학 콘텐츠품질관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에 관한 연구

서용완
건양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A study on instruction consulting in cyber university content quality management center

Young-Wan Suh

Department of Welfare for Senior Citizens at Ka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컨설팅의 사례를 분석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원격대학에서 활성화 하여 질 높은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 A사이버대학의 콘텐츠품질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업컨설팅 자료를 분석하고 본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과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현상학적 접근방법으로 탐색하였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수업컨설팅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나, 강의 질 개선을 위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원격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생소한 환경에서의 교육법을 알고 싶어 했고 피드백을 제공받고 싶어 하였다. 또한 연구원들은 강의평가의 객관적인 틀을 가지고 여러 번 강의 촬영한 영상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전달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보다 원활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하여 교수자와 연구자 사이의 라포 형성이 되어야 하며 강의 촬영 전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대학과 다르게 사이버대학은 학습자가 없는 강의실에서 카메라만 응시하며 수업컨설팅이 진행이 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촬영 및 녹화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의 교수자들은 수업컨설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질 높은 강의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사이버대학의 수업컨설팅의 확산과 효율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teaching consulting in the cyber university field and activated it in a remote university in the right direction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igh quality contents. This study analyzed the instructional consulting data of the Center for Content Quality Management at A Cyber University in Chungnam area and interviewed researchers working at the center using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based on the data.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ofessors participating in instructional consulting had many problems, but they were relatively activ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lectures. They wanted to know the teaching methods in the unfamiliar environment of remote universities. In addition, the researchers had difficulty in delivering feedback to the instructor through the process of exploring images taken several times with the objective framework of lecture evaluation. To allow better communication, it was necessary to form rapport between the instructor and researcher.

Unlike general universities, cyber universities have features and limitations in that they only take cameras in the classroom without learners and proceed with class consulting. Therefore, the teachers have a feeling of burden about shooting and recording, but they are less than general university teachers, and are more willing to engage in class consultation more actively.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as discussed and the proposal of cyber universities' instruction consulting and the effective planis proposed.

Keywords : Cyber University, Instruction Consulting, Improve the quality of the lecture,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Center, consultant

*Corresponding Author : Young-Wan Suh(Kanyang Univ.)

Tel: +82-42-600-6587 email: lovesyw1004@kycu.ac.kr

Received May 23, 2017

Revised (1st June 12, 2017, 2nd June 22, 2017)

Accepted July 7, 2017

Published July 31, 2017

1. 서론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을 말할 때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공교육의 붕괴를 말하면서 학교 교육의 변화를 사회가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문제를 열거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를 지탱해주고 있는 교육과정 속에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수업은 체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변인들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이 변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변해야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학교가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수업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하며, 교수자들은 적극적으로 수업의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자들과의 소통과 오픈 수업을 통해 진단의 과정과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질 높은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업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교수연수를 하였다면 지금은 매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교수가 늘어가고 있다. 또한 수업연구도 삼삼오오 모여 모임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업장학은 수업개선의 활동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교사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그 원인은 수업장학의 방법상의 문제로 장학담당자와 교사 간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 개선의 요구를 들 수 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소통 속에서의 피드백이 아닌 일방적 수업 장학은 결국 교사들의 자발성 부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수업분석 전문가로서의 역량 문제 등도 지적되고 있다[1].

그렇다면 과거의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 중 하나인 수업 장학의 문제점이 교수의 자발성 부족과 장학담당자의 수업분석 전문가로서의 역량 문제라고 한다면 앞으로 교수들의 자신의 수업의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업컨설팅에 참여하고 피드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교수의 전문성을 높여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수업 컨설팅은 기존의 수업개선 방법과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개선 방법으로 수업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수업컨설팅터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활동을 말한다[2]. 특히, 대

학에서 수업컨설팅은 교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활동의 하나이다. 수업 중에 나타나는 교수자의 교수법 및 수업행동을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상담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Hick(1999)의 연구에 따르면, 교수들은 우수한 교수(상위 25% 이상)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무려 84%였다. [4]박기용, 정한호 연구에서는 국내 교수자들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추가적인 연수 또는 학습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초등, 중등학교 교사들은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수학하면서 교수학습과 교수방법 등을 통해 학습할 기회가 있고, 교수법에 대한 토론과 교수법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다. 또한 방과 후 자발적 모임을 통해 자신의 수업의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수업장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교수는 전공분야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교수법에 대하여 학습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 학습한 교수법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대학 교수자에게는 교수법과 관련된 교육학적인 전문성이 요구가 된다. 따라서 대학교수들은 자신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통해서 학생들과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육학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며 수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업컨설팅이 필요가 제기 된다. Handal은 대학환경에서 수업컨설팅을 의무화해야 하며 교수자들은 수업컨설팅을 선택사항이 아닌 자신이 전문직 신장을 위한 의무감의 일환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 그래서 최근에는 각 대학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수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교수법, 그리고 연수 및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는 대학도 많이 있다[6]. 그러나 원격대학에서는 콘텐츠품질관리나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21개 사이버대학(2017년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2017년 3월 기준 현재, 21개의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원교 중 교수·학습지원센터나 유사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17개였다. 2011년에는 20개 사이버대학 중 11개 대학만이 설치되어 있었다[7]. 6년 사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오프라인 대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약 20%정도의 원격대학에서는 교수·학습지원

센터나 품질관리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유사기관은 있으나, 교수들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업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미비하다.

1.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 품질관리 센터의 사례를 살펴보고, 수업컨설팅 절차, 수업 컨설팅에 대한 연구원과 교원의 인식 그리고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원격대학 콘텐츠품질관리센터의 연구원들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많은 연구자가 수업 컨설팅을 연구하고 왔다. 그러나 초등, 중등학교와 일반대학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사이버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수업컨설팅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교수자들의 인식이 어떠한 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접근하였다.

- 〈연구문제 1〉 사이버대학에서 수업 컨설팅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연구문제 2〉 사이버대학에서 강의 하는 교수자의 수업컨설팅에 임하는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사이버대학 콘텐츠 품질관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의 연구원들의 인식과 일반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의 차이점과 개선점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수업컨설팅의 개념

수업 컨설팅의 개념은 하나로 정의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수업컨설팅의 개념을 교수자가 문제를 의뢰하여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하는 교수가 수업전문성 기준, 수업관찰, 면담, 자료 등에 기초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수준진단, 처방, 조언 등 일련의 문제해결력 지원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8].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개념은 실제 수업상황 속에서 수업의 한 주체로서 교사의 고민, 필요, 딜레마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교사, 동료교사, 외부의 수업컨설팅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수업에 대한 진단, 처방, 실행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가는 자기 주도적 전문성 신장의 과정이라고도 한다[9].

수업컨설팅은 기존의 수업 장학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장학은 수업자인 교사 개인보다는 대체로 학교 장학에 비중을 두고 이루어진다. 따라서 장학은 교수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반복적, 차별적, 지속적인 컨설팅이 아닌 잘 기획된 연구 수업을 한 차례 관찰하고 평가하는 일회성 방식이다. 반면에 수업컨설팅은 실제로 수업하는 교수자들이 필요성을 느껴 수업 전문성 향상과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전문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 및 상담을 통해 한 단계 수업의 질을 향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컨설팅의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Rosenfield(1987)가 자신의 저서인 `Instructional Consultation`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다.[10] 그녀는 수업컨설팅을 교사를 통해 학습문제를 가진 학습자에게 간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수업을 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학습자나 교수자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학습자와 부적절한 수업 그리고 불명확한 과제간의 수업적 오류(instructional mismatch)를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11-12]

2.2 국내 수업컨설팅의 동향

국내에서 수업컨설팅의 실천동향을 현장연구나 사례에서 찾아보면 크게 3가지 형태 동향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그 3가지 형태는 정부산하 교육관련 기관 중심의 수업컨설팅 지원 연구, 학계 중심의 수업컨설팅에 관한 이론 및 효과성 검증 연구, 현장 교사 중심의 자체적인 움직임이나 연구 활동이다[13] 실천동향으로 정부 주도로 각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은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컨설팅지원단 또는 컨설팅 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교컨설팅 실천모형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학교 컨설팅 실천모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컨설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컨설팅지원단에 소속된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수업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특별시 컨설팅 장학지원단을 중심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학교 컨설팅이라는 용어 대신에 컨설팅 장학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수업컨설팅을 교수-학습영역

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교육과정원에서는 교사들의 수업 능력 발달 및 교과 교육 전문성 신장을 지원할 수 있는 수업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교과별 내용 교수법 개발을 주요업무를 둔 실행 연구들을 하고 있었다[14]. 수업컨설팅 교사 훈련을 위한 E-learning 프로그램 개발, 교과별 수업 분석 안내 자료 개발 등이 중점적으로 특히 진행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현장 전국순회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수업컨설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등 수업컨설팅의 현장 보급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각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수업컨설팅 관련 연구학교나 정책학교를 선정하여 수업컨설팅 실행연구들이 실시되고 있다. 이 같은 실행연구들은 수업컨설팅이 학교에 적용될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고 실제 어떠한 현상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와 같은 실태나 현황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부주도형 학교컨설팅 연구 및 활동들의 공통점은 수업컨설팅이 교사의 교과내용 지식, 교과 교수법, 학습자의 이해 등과 같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수업능력 향상 등을 통해 수업개선에 필요하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학계 중심의 수업컨설팅에 관한 이론 및 효과성 검증 연구로서 수업컨설팅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 의미를 정립하는 연구, 수업컨설팅 모형과 관련된 이론적 탐색 및 개발연구, 수업컨설팅 적용이나 개입안의 효과성 검증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사들의 수업능력 개선 및 발달, 교과교육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해 교과별 수업컨설팅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업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교과별 내용 교수법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하였다. 이들 내용은 PCK를 기반으로 교과별 내용에 따른 교수법 개발, 수업컨설팅 지원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지원 시스템은 이미 수업컨설팅 주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 수업문제 상황을 교사가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 지원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

2.3 오프라인 대학의 수업컨설팅의 현황

사이버대학과 구분하기 위해 일반대학을 오프라인대학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수업컨설팅의 명칭은 2000년

대에 들어서서 대학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의 수준 높은 교육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며 세계 유수 대학처럼 강의 질을 높여야 하는 사회적 요구들도 일어나기 시작하였다[16]. 그러나 초·중등학교 현장과는 다르게 대학에서의 수업컨설팅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질 높은 교육,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수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업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수자들이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학문의 전문성의 교수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더디었으며,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17]. 대학에서 수업컨설팅의 활성화의 미비한 부분들의 연구는 조금씩 증가하고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업컨설팅의 대한 관련된 연구는 대학 수업컨설팅보다 초·중·중등학교의 수업컨설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반 대학에서는 교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교수컨설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260개 오프라인 대학 중 150여개 대학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교수학습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학 또는 교육공학, 교과과정 평가 등 분야별 연구원을 채용하여 적게는 1~2명 또는 10여명 이상을 배치하여 수업분석, 수업평가, 교안작성 등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비디오촬영 및 분석을 통한 대학 강의의 성찰경험 및 개선방안을 탐색한 이미자에 의하면 한 두 차시의 수업의 장면을 촬영하여서는 강의 전체적인 방법 맥락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18]. 한 두 시간의 강의를 분석하고 강의의 전체적인 요소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석하는 것은 강의 전반에 대한 맥락을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체크만 하게 됨으로 인해 합리적인 평가와 통계의 한계를 말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업컨설팅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가 장기적으로 교수의 수업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담당 교과 교수와 함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수업의 질 향상을 탐색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컨설팅에 참여하는 교수자들의 적극적인 오픈마인드로 수업개선의 의지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업컨설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교수자 개인의 탐색이 필요하다.

2.4 사이버대학 수업컨설팅 현황

사이버대학과 오프라인 대학의 수업컨설팅의 차이는

절차 면에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대전·충남 A의 원격대학에서 진행되는 수업컨설팅은 콘텐츠품질관리 센터에서 하고 있었다. 수업컨설팅 대상은 모든 전임교원들이 참여하여 콘텐츠의 질 향상과 수업개선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업컨설팅 과정은 먼저, 컨설팅 참여 접수를 받는다. 그래서 콘텐츠품질관리 센터 연구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한다. 두 번째 과정은 본 교수의 교과목과 맞는 스튜디오를 선정한다. 세 번째 과정은 강의 촬영을 한다. 네 번째,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들이 참여하여 강의를 분석한다. 다섯 번째, 강의의 피드백을 작성하여 해당 교수에게 전달하고, 면담을 실시한다. 면대면 수업을 하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원격대학 수업컨설팅은 강의실에 학생들이 없다.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응시하여 강의 촬영을 진행하고 그 강의를 토대로 수업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대학에서의 수업진행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대학에서도 수업컨설팅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원격대학의 경우, 1주차 75분 이상 분량으로 여러 차례 관찰과 모니터링을 통해 강의평가 및 분석 척도를 활용하여 수업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2017년 3월 기준으로, 21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회원 중에서 교수학습센터 및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정보개발센터, 콘텐츠 개발센터, 콘텐츠품질관리 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었다.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17개교였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 홈페이지가 없거나 교무처 또는 수업처 소속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대학도 있었다.

국내 원격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 현황 조사는 다음 <표 1> 과 같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Instruction Consulting in Remote Universities in Korea

| University | Instruction Consulting Support |
|------------|---|
| A | Speed of speech, use of profanity, costume, gaze treatment, lecture contents and time to new teachers |
| B | There is content about implementation in class consulting, but it was not practically operated. |
| C | Orientation of new professor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instructional consulting, support for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 designers and professors, specific information sharing through teaching workshops |

| | |
|---|--|
| D | Full-time faculty teaching consulting One-time obligations, support for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for teaching design, improvement of teaching quality through feedback |
| E | Offering consulting feedback to newly recruited teachers since 2011 |
| F | Teaching and learning center chief and researcher provide feedback together |
| G | The one-year schedule for instructional consulting was structured systematically, and for class consulting applicants |
| H | Instructor designers provide checklists for class consulting in advance and provide verbal feedback rather than written |

2.4 1 A 사이버대학 수업컨설팅 과정

A 사이버대학 콘텐츠품질관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컨설팅 과정을 보면 먼저 ① 수업컨설팅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서류 접수를 받는다. 그 후, ② 촬영스튜디오 팀과 연계하여 촬영 일정을 교수자와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 ③ 교안을 검수하는 팀에서는 교안을 검수하고 사전 검열의 과정의 시간을 가진다. ④ 교수자가 강의 촬영을 하기 전에 시선처리, 의상, 메이크업 등을 지원한다. ⑤ 3주간의 강의 촬영을 한 동영상을 통해 강의 분석을 실시한다. ⑥ 강의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여 피드백이 과정을 거친다. 총 6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의 경우 교수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반면, 사이버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정해진 스튜디오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를 통해 말하고 카메라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A 사이버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 과정을 제시하면 <그림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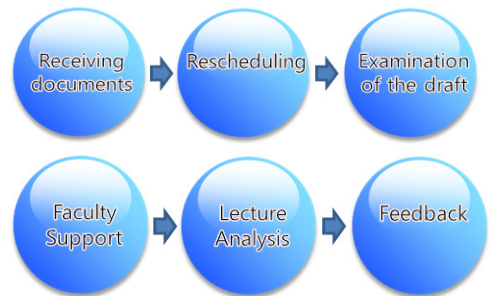


Fig. 1. Instructional consulting at Cyber University

2.4 2 타 사이버대학 수업컨설팅 비교 분석

2017년 4월 현재 한국원격대학회에 가입된 21개 사이버대학에서 수업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에서 오프라인 대학과 절차상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기술적인 차이가 보였다. 사이버대학에서 수업컨설팅은 카메라를 통한 강의를 촬영하여 분석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A사이버대학과 타 사이버대학에서 수업컨설팅에 참여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100%였다. 전임교원이면 누구나 콘텐츠품질관리센터에서 주관하는 수업컨설팅을 받아야 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드백을 통해 수업의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타 사이버대학과 큰 차이점은 대부분 대학에서는 수업컨설팅을 교원들의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Y사이버대학에서는 교수자가 수업컨설팅에 참여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있었으며, 교원업적평가에도 반영하여 교수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단, 신입 교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1년간 1교과목 이상 수업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원경력에 높을수록 참여도는 낮았고, 교원경력 낮을수록 참여도가 높았다.

S 사이버대학은 신입 교수자를 대상으로 교수학습센터 연구원과 영상 팀 담당자가 공동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면, 강의 스타일을 분석하고, 목소리의 높낮이와 일정성, 몸동작, 강의 구성과 완성도를 분석하였으며,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의 노력 등을 수업 컨설팅에서 다루고 있었다.

D사이버대학에서는 수업설계 과정에서 교수설계자와 교수자간의 미팅을 통해서 질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수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었다. 상호간의 미팅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여 교수자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오프라인 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컨설팅의 절차는 5단계 또는 6단계의 절차를 따르고 있었고, 대부분 사이버대학에서는 신입교원들은 수업컨설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학들도 많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대전·충남지역에 소재한 A사이버대학 품질관리센터 연구원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격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컨설팅 사례 및 연구원 경험을 일반화 시키기보다는 원격대학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의 사례를 있는 그대로 탐색하고 사이버대학에 맞는 수업컨설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본 연구 수행에 앞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가입되어져 있는(기준 2017년 4월) 전국의 21개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각 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하였다.

2017년 4월 현재 21개 사이버대학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 또는 콘텐츠품질관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7개교였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성을 위해 A대학을 선정하였다. A대학의 콘텐츠품질관리센터에서는 교수들의 교수법 신장을 위해서 매주 1회 2시간 이상 외부 특강을 진행하여 발음법, 교안 작성법, 컴퓨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내실 있게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다.

또한 본 센터에서는 교수자들의 효과적인 교수 활동 지원을 위해 수업컨설팅 신청 및 접수, 일정조정, 사전준비, 강의 촬영, 강의 분석, 피드백, 센터장과의 상담 등을 통해 수업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매년 콘텐츠품질관리 위해 전문성을 지닌 직원들을 채용하여 질 높은 콘텐츠 제공에 앞장서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사이버대학을 선정하였으며, 수업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품질관리센터에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1은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팀장급 연구원이었으며 교육공학에 전공하고 있었으며, 콘텐츠 품질에서 중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 연구원 2는 촬영과 편집 등에 경력이 우수한 연구원이다. 일반대학에서도 촬영과 수업컨설팅에 참여한 연구원으로서 사이버대학과 오프라인 대학 수업컨설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다. 연구원 3은 교안과 디자인을 개발하고 지원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교수학습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었다. 연구원 1은 콘텐츠품질관리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교수지원, 교육콘텐츠 분석 및 수업컨설팅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콘텐츠 품질관리센터에서는 수업개선과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3명의 연구원이 수업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여 수업컨설팅의 제작부터 평가까지 시행하고 있었다. 콘텐츠품질관리센터장을 비롯하여 내부 교원 3명 외부 교원 1명 연구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수업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었다. 사이버대학의 수업컨설팅의 경험이 있는 3명의 연구원을 선정하였다.

연구원 1은 타 사이버대학의 전반적인 기술과 정보를 지니고 있었으며 수업 컨설팅에 임하는 교수와 관계 및 교수 태도, 사후 피드백을 등 사이버대학 품질관리센터에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 유형과 내용, 운영 실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배경 변인을 나타내면 다음 <표 2> 과 같다.

Table 2. Background variables of study participants

| Number | Career | Task |
|--------------|--------|---|
| Researcher 1 | 5.5 | General affairs |
| Researcher 2 | 3.1 | Content analysis, inspection, editing |
| Researcher 3 | 1.2 | Content analysis, inspection, editing Teaching aid, teaching aid |

3.2 자료수집

본 연구는 A원격대학 교수학습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업컨설팅 관련 제반 자료와 연구원과의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21개 원격대학 홈페이지에 교수학습지원센터 또는 콘텐츠품질관리 센터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대학의 직원들과 전화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업컨설팅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통해 A원격대학 품질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업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존 연구에서는 수업컨설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된 면담 내용만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3.2.1 수업컨설팅 관련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촬영 기록된 강의 분석 및 상담 자료를 A원격대학으로부터 수집하였다. 또한 강의 분석 결과를 교수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서면으로 강의 분석 결과지를 피드백하고 있었다. 수업개선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적절한 교수지원

과 학습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모든 전임교수가 수업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한 교수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온라인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입 교수 같은 경우에는 2년 미만의 강의 경력교수들도 포함되어져 있었다. 교수자 개인 수업컨설팅 자가평가지 항목과 수업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 및 리스트를 각 항목별로 제공을 받았다. 수업컨설팅을 관련 자료를 통해 A원격대학 품질관리센터에서 주관하는 수업컨설팅의 수행절차 및 과정, 수행결과를 대략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으며 인터뷰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결과를 기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3.2.2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사전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서로 라포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사전 만남을 가졌다. 사후에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되는 논문 연구주제와 목적 및 연구방법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면담자 동의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많은 어려움과 원격대학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지를 통해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도중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고 중단 할 수 있음을 설명해 드렸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에게 녹음 자료를 보내주고 진술한 내용이 의도와 다르거나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들은 삭제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렸다. 질문 문항은 <표3> 과 같다

Table 3. Question Questions

| Area | Key questions |
|--|--|
| Course consulting process | ① General procedure of class consulting ② Class consulting |
|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instructional consulting of instructor | ① Recognition of instructional consulting participation of instructor ② Report method of lecture result ③ Instructional consulting participation of instructor |
| Difference between recognition of researcher of class consulting and general university class consulting | ① Recognition of researchers engaged in teaching consulting ② Difference between offline university and teaching consulting |

3.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인 분석 틀의 하나인 Colaizzi 접근법에 의거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같은 분석 틀

은 의미 있는 진술을 나열한 뒤, 의미단위로 분류하여 조직적으로 기술하고 현상에 대한 증거 틀을 다양화하여 반성을 거치며 구조적인 기술한 뒤 경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기술을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19].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대상자의 기술(protocols)을 읽는다.
-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statement)을 도출한다.
- ② 의미 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 진술한다.
- ③ 의미 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끌어낸다.
- ④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제모음, 범주로 조직한다.
- ⑤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최종적인 기술을 한다[20].

또, 본 연구에서 연구원들의 경험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분석 틀에 의거하여 사이버대학 콘텐츠품질관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연구원들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수집된 면담 자료에서 의미 있는 구나 문장을 도출하고 동일한 의미를 지닌 사례들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A사이버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 자료를 와 강의 분석 등을 정독함으로 사이버대학에서만 수업컨설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시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반복적인 정독과정을 거쳤다.

셋째, 수집된 자료는 colaizzi 5단계에 의거하여 분석되었다.

넷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다각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및 해석과정을 통해 왜곡된 분석 및 해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또한 교육학 전공자에게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결과

4.1 사이버대학에서의 교수자로서의 수업컨설팅에 임하는 인식

교수자 측면에서 수업컨설팅 참여 이유와 동기를 통해 교수자 인식을 탐색할 수 있었다. 교수자들이 수업컨설팅에 참여한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A사이버대학의 경우 교수자의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교육적 피드백을 제공받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었다. “대부분 젊으신 교수님들이라서 수업컨설팅에 참여하는 적극성이 있었고 온라인 강의를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오래된 경험이 있어서 강의의 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또 새로운 강의법과 기술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이버대학에서 최초로 블랙스튜디오를 구축하였는데, 많이 궁금해 하시고 블랙스튜디오나 대담형 강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어요” 연구원 1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수자들은 수업컨설팅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4.2 사이버대학 콘텐츠 품질관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의 연구원들의 인식

수업컨설팅에 대한 연구원의 인식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프라인 대학과 다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원격대학에서 수업컨설팅을 진행한 연구원 1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강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업컨설팅 결과를 서면과 이메일 그리고 공문결재 후 필요 시에는 센터장님 면담을 통해 전달을 하고 있는데 몇 몇 교수님께서 강의 개선사항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힘들고, 곤란하기도 해요. 사실 연구원 입장에서 교수님께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강의 개선을 위해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요.”

연구원들은 강의 평가의 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강의 촬영한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여 탐색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탐색을 통해 강의자의 습관과 얼굴표정, 몸짓, 시선처리, 의상 컬러 등 다양하게 보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메모하면서 반복하며 그 부분을 다시 체크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교수자에게 e-mail과 서면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 시에는

센터장을 통해 면담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절차 속에 연구원들은 교수자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수자와 연구원의 라포를 형성하여 질높은 강의의 수요자인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주기 위해 심층적으로 회의 과정을 통해 강의계획서를 토대로 상호작용이 필요해 보인다.

교수설계 과정부터 세세하게 연구원과 미팅을 통해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연구원 또한 교수자에게 필요한 보충자료와 교수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수업컨설팅의 역할을 하는 콘텐츠품질관리센터에서는 콘텐츠디자인팀, 강의 촬영 팀, 미디어 팀과의 적절한 협조를 통해 교수자가 원하는 강의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4.3 일반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의 차이점과 개선점은 있는가?

A사이버대학의 참여한 콘텐츠품질관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은 교수들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업컨설팅 신청을 접수 받는다(모든 전임교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그리고 연구원들과 충분히 미팅을 통해 강의계획서와 강의 촬영에 대한 방법과 스튜디오 기법, 강의 교안 작성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 이후, 강의 촬영을 한다. 1주차부터 내부 위원을 통해 모니터링을 바로 시작하여 개선할 사항을 수업컨설팅 참여교수와 면담을 진행한다. 모니터링이 끝나면 피드백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필요 시에는 면담을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하고 개선을 하고 있었다. 많은 사이버대학과 오프라인대학에서는 신입교원 또는 신청한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A사이버대학에서는 모든 전임교원이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전임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촬영과 수업컨설팅에 임하고 있었다.

연구원3에 따르면 촬영된 강의를 처음 모니터링 할 때는 교육부 법정 시간인 75분 이상 준수하였는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세세하게 보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만 필기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요. 그리고 참여교수자의 습관이 강의 영상에 어울리지 않은 점을 필기한다고 한다. 그리고 목소리의 톤과 의상색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기록을 한다. 그리고 강의 촬영하기 전에 먼저 참여하는 교수님들께 수업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정해서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고 있었다.

A사이버대학의 콘텐츠품질관리센터에서는 수업컨설팅 일정에 교안 작성을 LCDMS(콘텐츠개발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강의 교안을 탑재하여 1주일 전 연구원들은 교안을 재 검수과정을 거친다. 오타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정을 요청하여 교안을 검토한다. 그래서 교안을 반복 탐색하는 과정을 결과를 교수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프라인 대학과 사이버대학의 수업컨설팅의 절차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장 다른 특징을 고른다면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이다. 교수는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이버대학의 강의는 카메라만 응시하며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해야 한다. 학습자의 반응은 즉각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에서는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퀴즈, 자유게시판, 1:1상담 등의 코너를 통해 학습자와 소통을 하고 있었다.

오프라인 대학보다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환경에서 수업컨설팅은 보다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 보인다.

5. 결어 및 제언

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A사이버대학의 경우보다 질 높은 수업컨설팅이 되기 위하여 콘텐츠품질관리센터에서는 교수자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었다. 매주 교수들이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고, 컴퓨터 교육과 특강교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피드백이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매우 역동적인 교육을 통해 교수자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있었다.

교수자들에게 필요한 교수학습방법에 관련된 서적을 구비하여 전임교수 및 외래교수들이 언제든지 책을 열람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들 또한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연구원들도 강의에 관련된 다양한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 자료와 동영상 및 사진 자료를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강의 촬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수자들에게 수업컨설팅 결과표를 토대로 피드백이 제공되고 있는데 교수자가 그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교수법 신장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의 분석 결과를 은유적 표현을 통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교수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강의분석의 장점을 위주로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그 이후 개선사항을 말미에 넣어서 연구원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교수자들은 그들만의 전공의 권위자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의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품질관리 센터 또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연구원들은 수업컨설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수자의 품격 있는 강의의 질과 수업개선을 위하여 라포를 형성하여 개선사항을 전달하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인다. 오프라인대학과 달리 원격대학의 수업컨설팅은 학습자의 대상이 온라인상에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학의 수업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에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A대학을 콘텐츠품질관리센터를 통해 수업컨설팅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은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서 아직은 일반화 또는 활용도가 많이 부족하고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게 현실이다. 오프라인 대학과 사이버대학이 차이가 시·공간상 분명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에서는 오프라인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컨설팅의 절차를 따르고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사이버대학에서 특수성이 분명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을 고려한 수업컨설팅의 모형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오프라인 대학보다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업개선에 대한 노력과 수업컨설팅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할 시점이다.

둘째, 오프라인 수업은 자연스럽게 교수자와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묻고 답할 수 있지만, 카메라만 응시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사이버대학 교수자들은 많은 애로사항과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카메라를 보면서 학습자에게 물어야 한다. 즉각 피드백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학의 수업컨설팅과 사이버대학의 수업컨설팅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연구원들은 인식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교육은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더 나은 수업컨설팅과 사이버대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업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 인력을 충원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연구원들은 강의 분석을 통해 교수자에게 정

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업컨설팅에 참여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들은 수업컨설팅 전문가 과정 등 교육을 통해 풍부한 학습이 필요해 보이면 다양한 수업컨설팅 경험을 통해 교수자들에게 필요한 객관적인 강의 분석 결과를 전달하여 교수자 강의에 우수한 점과 개선할 점을 제공해 줌으로써 다음 학기 강의 촬영 및 수업을 진행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피드백을 전달할 때 직설적인 피드백은 아무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달할 때 스킬이 필요해 보인다.

References

- [1] Yoona Lee, Jung Chan Kang, Young Bum Oh, Jang Soo Lee,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vol. 28, no. 4, pp. 729-755, 2012.
- [2] Dong-Joon Jin, Chang Nam Hong, Do-Ki Kim, School Management Consulting, Instruction Consulting, Education Science, 2012.
- [3] Alpert, J. L, Meyers, J, Trainng in consultation, Springfield, II, Charles C. Thonas, 1983.
- [4] Hick,O,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structional consultation",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higher Education, vol. 61, no. 1, pp. 65-83, 1990.
- [5] Sang-soo Lee "Educational Consulting Model Using Mathematical Engineering",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26, no. 4, pp. 93.
- [6] Constant, Mathematical Engineering, Instructional Consulting Model, Educational Engineering Research, vol. 26, no. 4, pp. 87-120, 2010.
- [7] Han Ho Jeong, A Study on the Instruction Consulting Case at the Distance Learning Center, Educational Engineering Research vol. 28 no. 1, 2012.
- [8] Hwasun Lee, Oh Sang Chul, Sun Hong Hong, Instructional consulting support and activation plan: Focusing on problems, program support, and policy suggestions, pp. 33-63, 2007.
- [9] Development of Consultation Model for Social Studies Classes: Tasks and Prospects of School Consulting, Kyungin Education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 Found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Consulting Group, pp. 161-184, 2007.
- [10] Rosenfield S., Developing instructional consultants: From novice to competent to expert,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vol. 13, no. 1-2, pp. 97-11, 2002.
DOI: <https://doi.org/10.1080/10474412.2002.9669455>
- [11] Rosenfield, S. A. Instructional consultation, Hillsdale, NJ, Erlbaum, 1987.
- [12] Rosenfield, S., Instructional consultation: A model for

- service delivery in the schools,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vol. 6, no. 4, pp. 279-316, 1995.
DOI: https://doi.org/10.1207/s1532768xjepc0604_1
- [13] Do Ki Kim, Qualitative Research on Consulting Scholarship, Seoul National University, Ph. D., 2005.
- [14] Hwajin Lee, Sang-cheol Oh, Supporting and Activating Instructional Consulting: Focusing on Problems, Program Supp. ort, and Policy Suggestions, pp. 33-63, 2007.
- [15] Jung, Kang Kang, Constanti, Intervention Design Model for Effective Instruction Consulting, Korean Education, vol. 38, no. 3, pp. 5-32, 2011.
- [16] Young-Kea Bun, Class supervision and class analysis, Academician, 2008.
- [17] Mi Ja Lee, Video shooting and analysis, exploring the experiences and improvement plans of university lectures, 2011 Korean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Society Spring Conference, Jan. 2012.
- [18] Mija Lee,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university lecture reflection and improvement through video shooting and analysis, 2011 Korea Educational Information Media Society Spring Conference, 2012.
- [19] Yong-gwan Song, Hyun Jung Hyun,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xperiences of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on the Practice of Education, Evaluation of Curriculum, vol. 12, no. 1, pp. 221-246.
- [20] Bun Han Kim, A Comparative Study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Focusing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9]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vol. 29 no. 6, pp. 221-223, 2009.

서 용 완(Young-Wan Suh)

[정회원]



- 2008년 8월 : 군산대학교 (교육학 석사)
- 2012년 2월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수료)
- 2015년 9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학, 평생교육학